

## TIGER CD금리투자KIS(합성)

(357870)



개인연금



퇴직연금

TIGER ETF

2024년 4월 30일 기준

## 기초지수

KIS CD Index(총수익)지수는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 금리의 일환산 값을 지수 일별 수익률로 산출

## 기본정보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최초설정일       | 2020년 7월 6일               |
| 기초자산        | 장외파생상품                    |
| 순자산총액       | 7,384,750백만원              |
| 1주당순자산(NAV) | 54,215.12원                |
| 총보수율(TER)   | 연 0.03 %                  |
| 분배금지준일      | 1,4,7,10,12월 마지막 영업일      |
| 집합투자업자(운용)  | 미래에셋자산운용                  |
| 신탁업자(자산보관)  | 하나은행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반사무관리회사    | 한국펀드파트너스                  |
| AP/LP       | 홈페이지(www.tigeretf.com) 참조 |

## 거래정보
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상장거래소            | KRX 유가증권시장          |
| 종목명              | TIGER CD금리투자KIS(합성) |
| 상장코드             | 357870              |
| 블룸버그 티커 (펀드)     | 357870 KS           |
| 블룸버그 티커 (기초지수)   | -                   |
| 결제일              | T+2                 |
| 설정단위(CU)         | 2,000주              |
| 거래단위             | 1주                  |
| 일거래량(최근3개월 일평균)  | 326,826주            |
| 일거래대금(최근3개월 일평균) | 17,638백만원           |

## 분배현황 (최근 2년)

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분배금지급일 | 주당분배율(%) | 주당분배금(원) |
| -      | -        | 0        |

## 투자 포인트

- 91일 금리 수준의 목표수익률
-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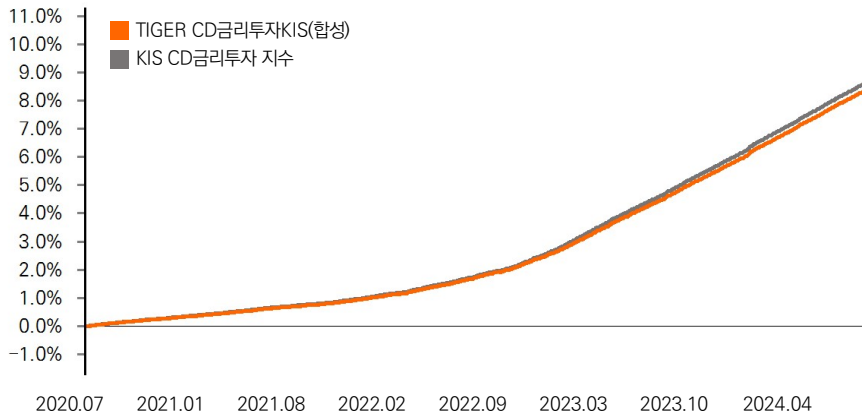
## 운용성과 (%)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1M   | 3M   | 6M   | 1Y   | 3Y   | YTD  | 설정이후 | 변동성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TIGER CD금리투자KIS(합성) | 0.30 | 0.89 | 1.84 | 3.71 | 7.82 | 1.19 | 8.43 | 0.12 |
| KIS CD금리투자 지수       | 0.30 | 0.91 | 1.88 | 3.80 | 8.06 | 1.22 | 8.69 | 0.16 |

\* 위의 수익률 정보 및 아래 그래프는 운용기간 중 발생한 분배금 재투자를 가정하였음.

변동성 : 최근 1년간 일간수익률 기준 표준편차 연환산 (운용기간 1년 이내인 경우 전체 운용일수 기준)

## 누적성과 그래프



※ ETF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 ※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,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 ETF를 취득하기 전에 (투자대상,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)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